



박소현의 섹.시.토크

11월의 어느날, A는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친정에 맡겨놓은 아이 때문에 1차만 참석하고 회식자리를 빠져나온 그녀가 집 근처에 도착했을 무렵 막 모텔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차 한 대와 마주쳤다.

창문을 연 채 길을 살피고 있는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A는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몸을 돌리고 말았다. 그 얼굴은 한 동네 사는 오래된 친구 B의 남편이었다. 차가 모텔을 벗어난 뒤에야 A는 고개를 빼고 멀어져가는 차를 눈으로 쫓았다. 분명 친구네 차였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 놀라 옆에 앉은 여자가 누군지 미처 살피지 못한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뒤, B는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치 내 남편이 바람피는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가슴이 뛰었다. 친구 B는 금슬이 좋기로 유명했다. 결혼한 지 7년이 되도록 처음 만난 남편 기념해 아내에게 꽃을 보내는 사람은 B의 남편뿐이었다.

B의 남편이 유난히 아내에게 공을 쏟는 데에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긴 했다. B가 결혼한 이래 지금까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도 인정할 만큼 꽤나 까탈스러운 시부모를 섬성성의 모시고 있으니,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에게 공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시부모 모시느라 고생하는 대신 남편 만큼은 잘 만나 호감하고 사는 줄 알았던 B.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배반의 진실이 도사리고 있을 줄이야. 남편이 바람피는 줄도 모르고 까탈스런 시부모



에 에 돌을 건사하며 살고 있는 B에 대한 연민이 마음을 괴롭혔다. 불쌍한 내 친구를 어쩌나...

며칠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A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친구를 위한 도리라는 결론에 다다랐고 결국 B를 찾아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실은 며칠 전에 00모텔 앞에서 네 남편 봤어. 차

끌고 모텔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여자를 태웠더라." B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을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B는 '푹'하고 웃음을 터뜨린다. "어머, 어떻게 그걸 볼 수 있니?", "그게 무슨 소리아?"

모텔이란 데가 훨씬 적극적으로 사람을 확 바꾸지...

A의 놀란 얼굴을 보더니 이번에 박수까지 쳐대며 웃는다. "그 옆에 탄 여자야 바로 나야." 당황한 건 오히려 A였다. "남편이란 모텔에 간 거야?", "응." "집 놔두고 왜?",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

듣고 보니 그랬다. 언제부터가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주무시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방에서 자면 답답하다고 거실에 자리를 칸다는 것이다. 어머니 잡귀가 유난히 밝은 것을 아는 B로는 남편과 섹스를 할 수가 없었고 분위기를 잡아 보려해도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리면 멈칫하게 됐다.

그렇게 하루 이를 머무다보니 어느새 한 달이나 지났고,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다 판단한 부부는 결국 매주 금요일 무슨 핑계를 대고서라도 밖에서 만나 몰래 모텔을 들렀다 귀가하기로 했다. "모텔이란 데가 은근히 사람을 자극하는 맛이 있더라. 집에서 할 때 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바뀌어 갔지."

다시 연애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자극이 너무 좋아 지금은 오히려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 주무실까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고 했다. "난 또 그것도 모르고 괜히 마음을 졸였네."

한바탕 헤프닝으로 끝났으며 웃는 얼굴로 B의 집을 나온 A.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찾아드는 묘한 아쉬움은 뭐지. 왠지 B의 집을 찾아갈 때보다 A의 어깨는 다소 처진 듯 했다. <연애칼럼니스트>

친구 부부가 모텔에 간 까닭은?

리빙 센스

단호박 경단

찰쌀가루, 단호박 1/2개, 설탕(4 숟가락), 카스텔라 가루(적당), 소금(소금)

- 1. 단호박은 속을 파내어 찐다. 단호박 대신 호박 고구마를 사용해도 된다.
2. 호박이 다 익으면 겹질을 벗겨 잘 으갠 후 설탕을 섞어 준다.
3. 호박에 소금, 찹쌀가루 적당량을 넣어 잘 치대어 준다. (호박 으갠 것따뜻할 때 반죽해야 쫄깃쫄깃하고, 반죽이 풀어지지 않는다.)
4. 반죽이 다 되면 적당량을 덜어 동그랗게 경단을 빚는다.
5. 끓는 물에 넣고 경단을 넣은 후 물 위로 동동 뜨면 체로 건져 물기를 뺀다.
6. 카스텔라 가루에 경단을 굴려 입혀낸 고소한 단호박 경단이 완성된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1월 28일(음 11월 1일 壬申)

Horoscope section with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s. Includes signs like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연예인들 결별·황당한 스캔들

이번 주 연예인들의 헤어집이 화제가 됐다. 연예인 잉고 커플로 소문난 이서진·김정은 커플의 결별 소식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 안타깝게 했다. 방송에서도 연인 사이임을 밝히고 공개 데이트를 했던 두 사람인 만큼 갑작스런 이별 소식에 인터넷이 뜨거웠다.

특히 이서진이 전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두 사람의 이별 배경에 대해 네티즌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가수 박지윤도 이별의 아픔을 겪었다. 영화 및 CF 연출자인 용이 감독과 사귀었던 박지윤은 올 초부터 이별설이 나왔으며 성격차이로 갈라선 것으로 알려졌다.

깜짝 스캔들도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 지켰다. 배우 김혜수와 유해진이 내년 5월 결혼을 하며 웨딩업체도 선정했다는 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화제가 됐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설이 보도된 이후 양측 소속사는 "결혼설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두 사람은 친한 동료 사이일 뿐"이라고 이를 부인하며 소문을 일축했다.

이외에도 배우 한지민과 가수 슈도 스캔들에 휩싸였다.

한지민은 가수 알렉스와의 열애설이 나왔지만 헤프닝으로 밝혀졌고, 슈는 농구선수 임효성의 경기를 보러간 사진이 공개되면서 열애설의 주인공이 됐다.

가수 비도 앨범 '레이니즘'이 청소년 유해물 판정을 받으면서 검색어 순위에 등장했다. 24일 비의 4집 앨범 '레이니즘'이 수록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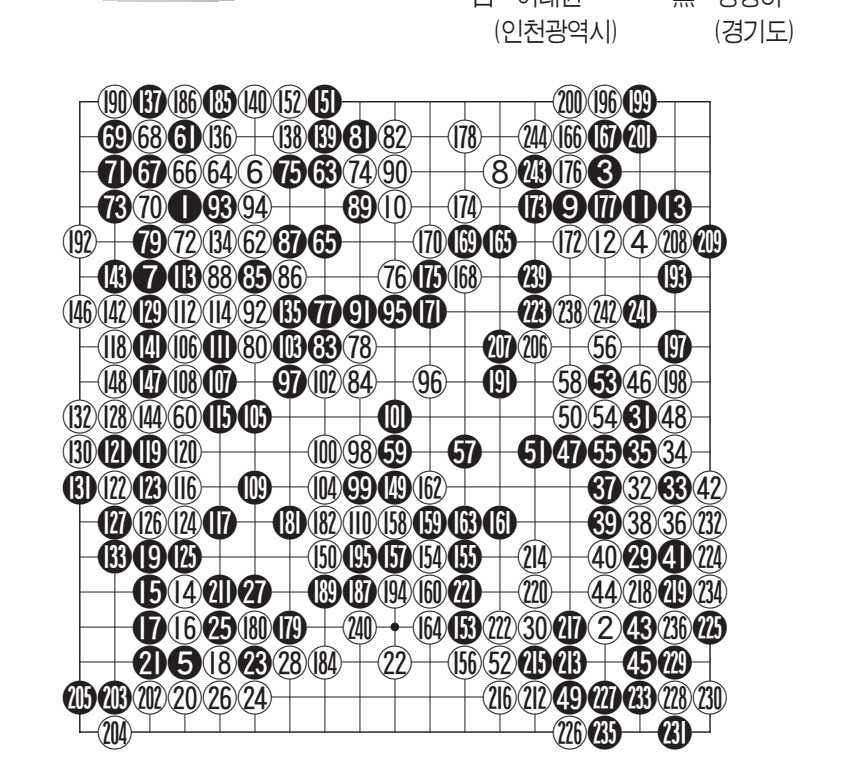
중 일부가 남녀간의 성관계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물' 판정을 받아 19세 이하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유해물 판정을 받은 다음날 오히려 앨범 판매량이 2배로 증가하면서 비는 또다시 화제의 인물이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배우 유해진과의 결별 스캔들에 휘말린 김혜수.

제89회 전국체전바둑대회



인천광역시 금메달 추가 학생부 결승전 총보(1~244)
이대권 (인천광역시) 양승호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작년부터 지역연구생들을 새롭게 편입하면서 어린이부와 학생부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학생부의 결승전인 이 판에서도 인천의 이대권군이 치열한 접전 끝에 경기도의 양승하군을 8집 반 차이로 제치는 역전극을 펼치며 인천에 금메달을 안기고 있다.

굿모닝 잉글리쉬 <1199>

English lesson content for 'You want some?' including dialogue and vocabulary.

오하오우 니혼고 <1199>

Japanese lesson content for '失禮ですが、金さんはいくつですか。' including dialogue and grammar.

니하오 쑹구위 <976>

Chinese lesson content for '金老师在不在家?' including dialogue and vocabulary.

한자 이야기 <916>

Chinese character lesson content for '日日新(일일신)' including explanation and examples.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Band) with contact information.